



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22> 아이치중앙농협 영농 집단화

영농조합은 생산, 농협은 가공·판매... '분업'이 성공 열쇠

아이치(愛知)중앙농협이 소재한 안췌(安城) 지역은 나고야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고 인구의 도쿄(東京)시와 동등한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안췌 지역은 농업 선진지역답게 30년 전부터 농업의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기관의 후원으로 3천ha를 넘는 농경지의 50%를 106개 마을 영농조합에...



직매장은 대개 연간 매출액이 2억 엔 정도되는 소규모이지만 갈수록 출하 농산물이 늘고 새로운 품목이 개발되어 직매장 판매고가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한다. 아이치 중앙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매장 모습.

농경지 50% 106개 조합 집단화

이 가운데 3개 영농조합은 법인화해 전국적으로도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협이 주도해 영농을 마을별로 집단화하고 법인화했기 때문...

또 하나의 특징은 합병을 하면서 폐쇄한 지점이나 'A-COOP'(한국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같은 것) 자리에 노인복지 시설이나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해 조합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 직매장은 지역별로 10개를 개장해서 2800명의 조합원이 출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직매장에 출하하기 위해 농작업을 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 유지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출하회원 사진 걸고 '실명제' 판매

직매장 중 한곳을 방문해 보았다. 전에는 농협의 A-COOP이었으나 5년 전 폐쇄하고 직매장으로 전환한 곳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생산 농민 사진이 걸려있어 생산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협이 합병 주도 영농조합 집단화·법인화 합병후 폐쇄된 직매장은 노인복지시설 호평

지를 제시하고 영농지도원 65명이 지점별 농가를 순회하며 생산지도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70% 수준인 지역 내 생산물을 차차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농협이 나서 무화과 판촉활동도

이 지역은 일본 제일의 무화과 산지로도 유명하다. 논에도 무화과를 집단적으로 심어 가치지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농약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

조합원 한 명당 4,000만엔 고수익

연간 매출액은 2억 8천만 엔으로, 조합원 한 명당 4천만 엔이다. 다카다나 마을의 전체 경지면적 422ha의 64% 정도를 7명이 담당해서 벼농사, 밀, 콩을 집단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한 사람당 평균 38ha를 경작하고 있는 셈인데, 이처럼 노동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기계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은 개별 투입 노동시간 비율로 완전 평등 분배 되는데, 2005년에는 한 조합원당 2천만 엔씩 분배되었다고 한다.

대규모 영농조합의 경우 대부분 가공과 판매를 직접 하고 소비자들과 직거래도 하는데, 다카다나 영농조합은 모든 생산물을 농협을 통해 판매한다.

일본 히로시마 수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통신원shyun21@naver.com



농산물 직매장에 걸려있는 출하 회원들의 사진. 소비자가 직매장의 농산물을 받고 구입하는 데 이 사진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Grid of 24 legal notices (면책결정공고) with details like case numbers, parties, and court information. Includes a contact box for 光州日報 at the bottom right.